

# 1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2019년 1월 2일



## 해양기상정보

- 해상 특성(최근 5년간('14~'18년))
  - 상순: 먼바다 전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앞바다의 파고는 낮았음
  - 중순: 먼바다 전해상과 동해 앞바다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하순: 먼바다 전해상과 동해-제주 앞바다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14~'18년))
  - 1월: 7.8일(상순 1.9일 / 중순 2.3일 / 하순 3.6일)
  - 12월 평균 풍랑특보일 수(10.5일)보다 2.7일 감소
- 해수면온도
  - 12월 실황: 서해(7.9 ~ 13.8℃) / 남해(12.3 ~ 19.2℃) / 동해(5.1 ~ 18.1℃)
  - 1월 예상: 서해(2 ~ 8℃) / 남해(10 ~ 17℃) / 동해(13 ~ 15℃)
- 조석(고극조위)
  - 인천: 23일(917cm) / 완도: 22일(408cm) / 포항: 23, 24일(24cm)

## 해양안전정보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3~'17년))
  - 전체 11,209척 중 750척(6.7%) 으로 연 평균 150척의 사고가 발생
- ☞ 운항자 및 해양 종사자들은 안전운항이 요구되며, 동절기 대비 선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비불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특보 및 항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항해를 하도록 권고

**<1월 해양사고예방 표어>**  
 안전한 바다가 행복한 바다입니다!

## 어업정보

- 1월 어황
  - 망치고등어는 평년비 순조로우며, 고등어, 전갱이는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 갈치는 평년수준, 멸치, 참조기는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하겠음

---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

# 해양기상정보

## 최근 5년간('14~'18년) 1월 순별 평균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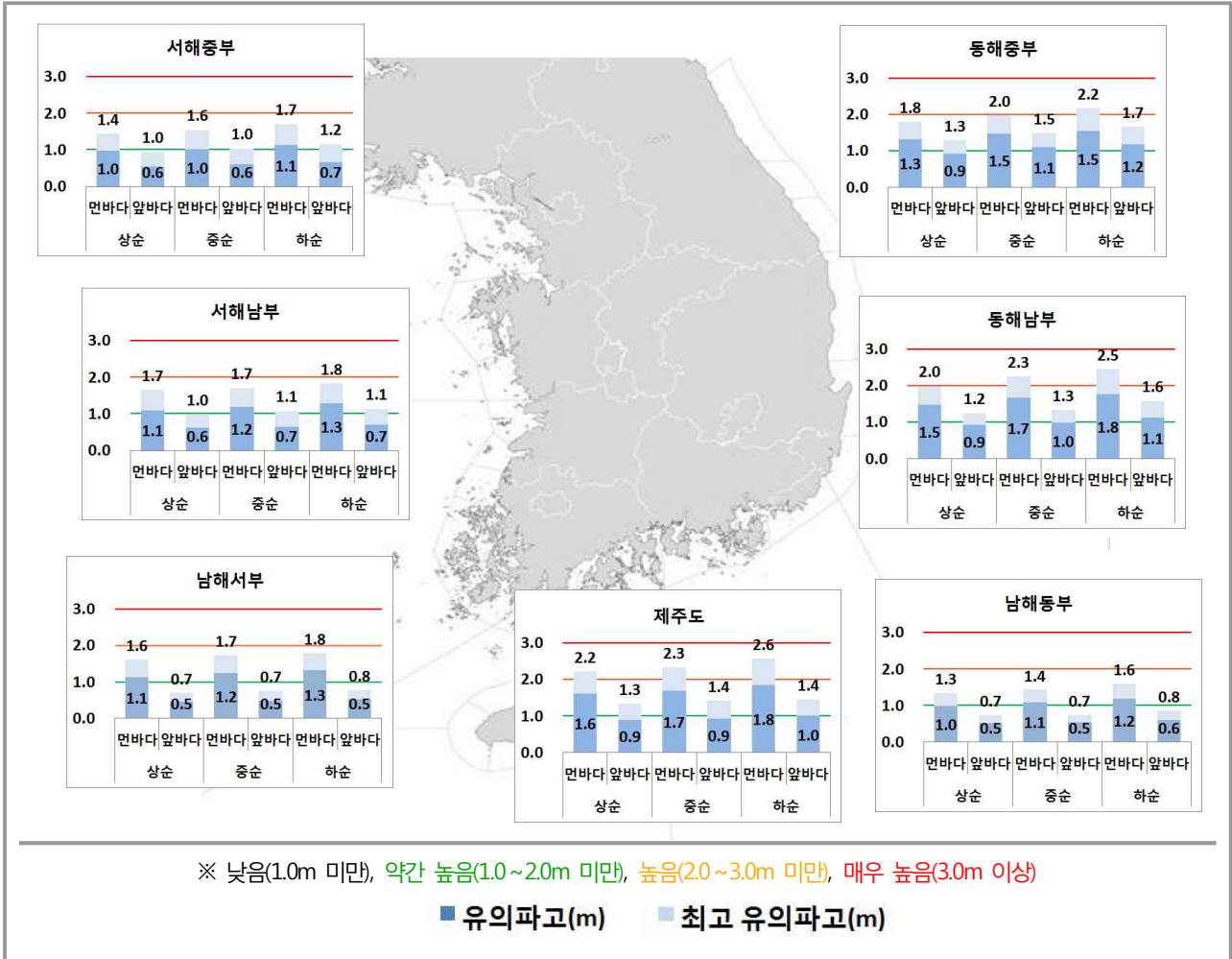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14~'18년) 1월 순별 평균 파고

☞ 파고정보는 해역별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의 최근 5년간('14~'18년) 유의파고, 최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을 활용

※ 유의파고: 일 평균 유의파고의 평균값 / 최고 유의파고: 일 최고 유의파고의 평균값

☞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관측 기간 5년 이상, \*신안, 추자도 추가)

	해양기상부이	파고부이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옥도, 진도, 군산, 영광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노화도, 고흥,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류도, 다대포, 한산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죽변, 구룡포, 후포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 최근 5년간('14~'18년) 1월 지점별 평균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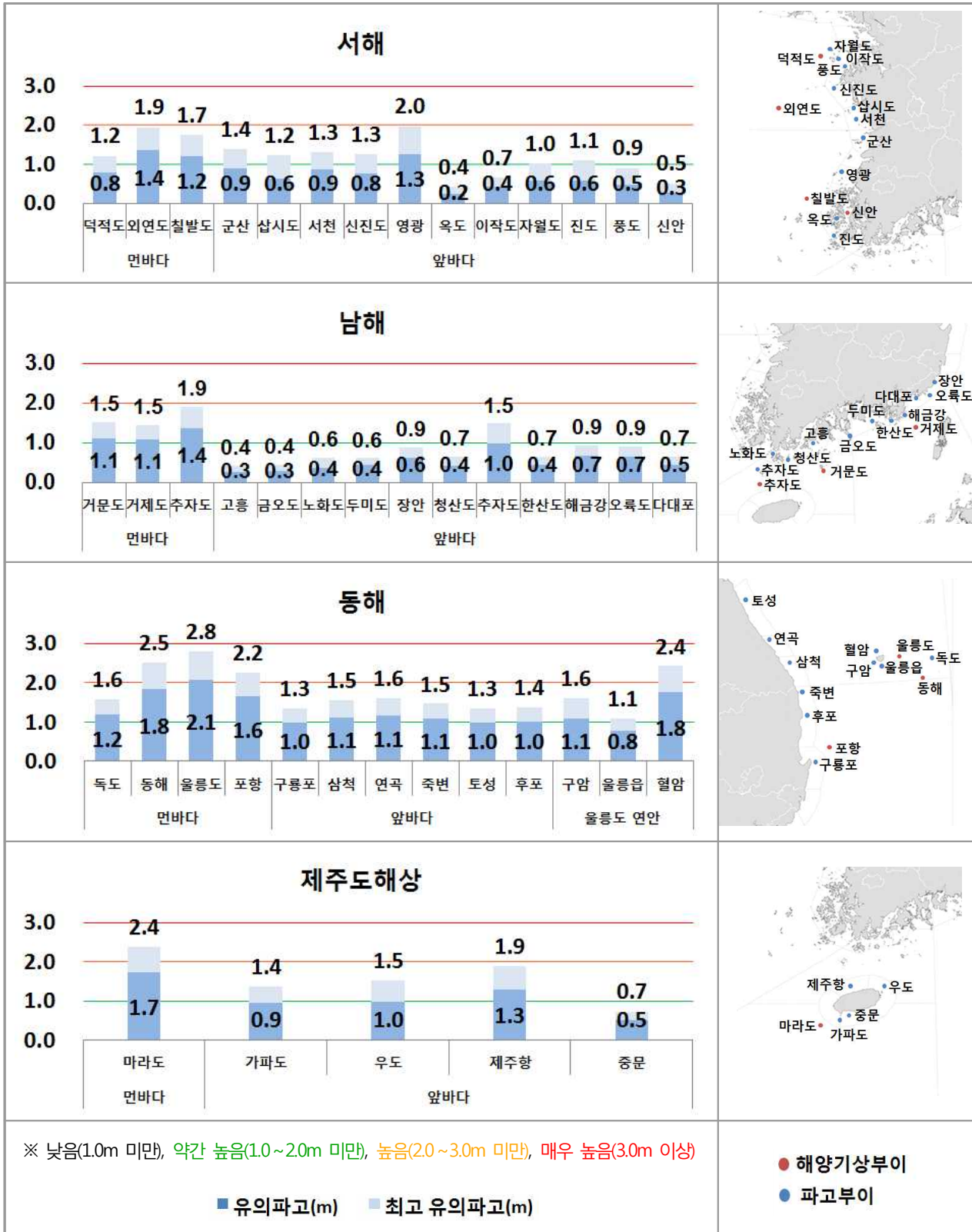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14~'18년) 1월 지점별 평균 파고

○ 최근 5년간 1월 순별 유의파고 특성

- (상순)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낮았음  
 ※ 동해 남부·제주도 먼바다는 최고 유의파고가 2m 이상 높았음
- (중순)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동해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동해·제주도 먼바다는 최고 유의파고가 2m 이상 높았음
- (하순)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동해, 제주도의 파고는 약간 높았지만 그 밖은 낮았음  
 ※ 동해·제주도 먼바다는 최고 유의파고가 2m 이상 높았음

○ 최근 5년간 1월 지점별 유의파고 특성

- (서해) 먼바다: 외연도, 칠발도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앞바다: 영광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영광은 최고 유의파고가 2m 이상 높았음
- (남해)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추자도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동해) 먼바다: 울릉도의 파고는 높았고, 그 밖은 약간 높았음  
 앞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울릉도 연안: 구암, 혈암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동해, 울릉도, 포항, 혈암은 최고 유의파고가 2m 이상 높았음
- (제주도) 먼바다: 전 해상의 파고는 약간 높았음  
 앞바다: 우도, 제주항의 파고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은 낮았음  
 ※ 마라도는 최고 유의파고가 2m 이상 높았음

○ 최근 5년간 1월 지점별 유의파고 극값(일 평균)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값(m)	지점	날짜	값(m)	지점	날짜	값(m)
서해	영광	'16.01.24.	4.5	영광	'15.01.01.	4.0	영광	'16.01.19.	4.0
남해	추자도	'16.01.24.	4.3	추자도	'18.01.10.	3.7	추자도	'17.01.20.	3.6
동해	울릉도	'16.01.20.	5.0	혈암	'17.01.14.	4.7	동해	'16.01.20.	4.7
제주	마라도	'16.01.24.	5.2	제주항	'16.01.24.	5.0	마라도	'15.01.01.	4.4

최근 5년간('14~'18년) 및 '18년 1월 풍랑특보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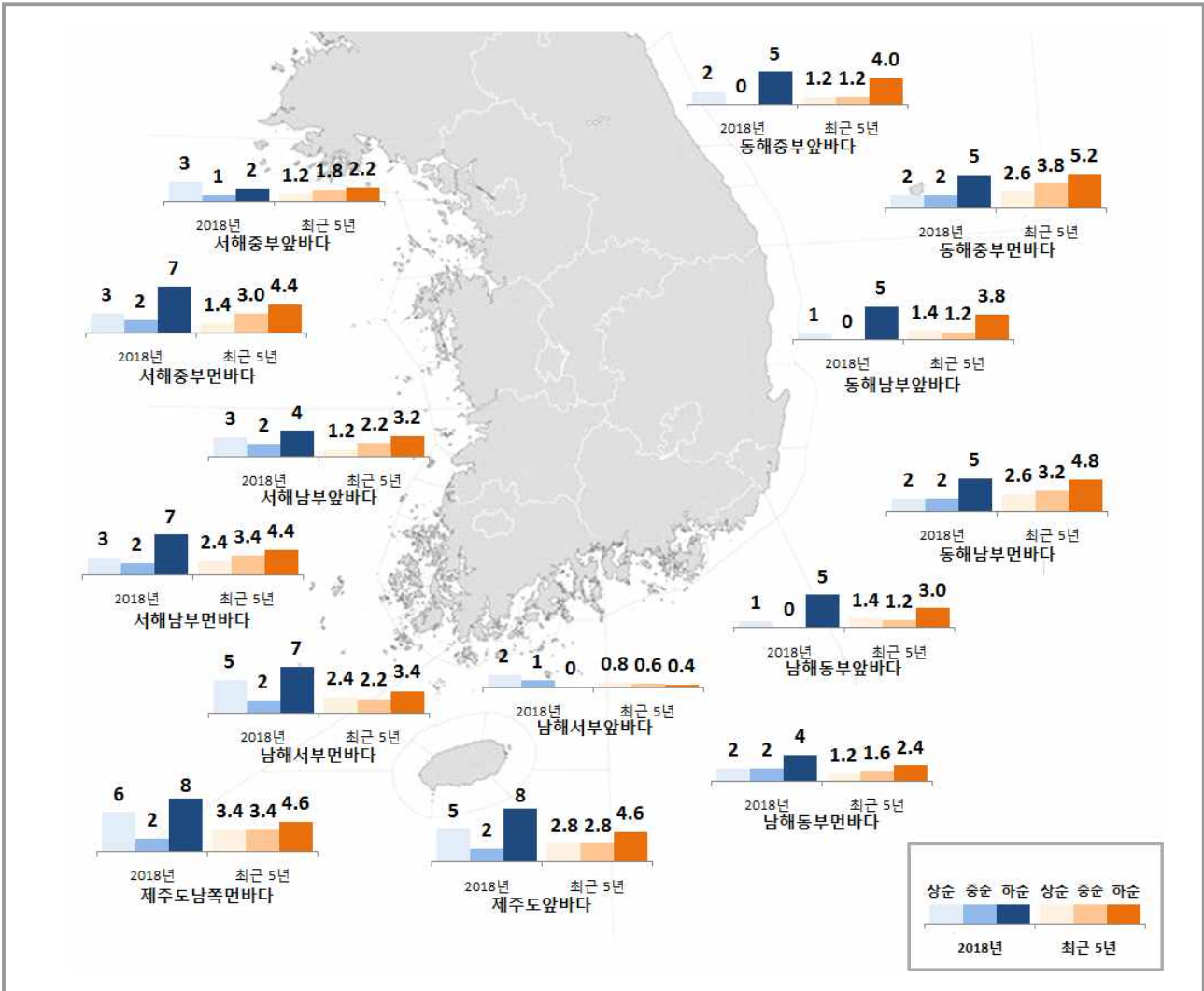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5년간('14~'18년) 및 '18년 1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최근 5년간 1월 풍랑특보 평균 발표일 수: 7.8일
  - 12월(10.5일)보다 2.7일 감소
- 1월 순별 풍랑특보 평균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간 평균: 상순 1.9일 / 중순 2.3일 / 하순 3.6일
  - 지난해('18년): 상순 2.9일 / 중순 1.4일 / 하순 5.1일
- 최근 5년간 1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최소 해역
  - 최다 해역: 동해중부먼바다 / 평균 11.6일
  - 최소 해역: 남해서부앞바다 / 평균 1.8일

■ 지난해('18년)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및 파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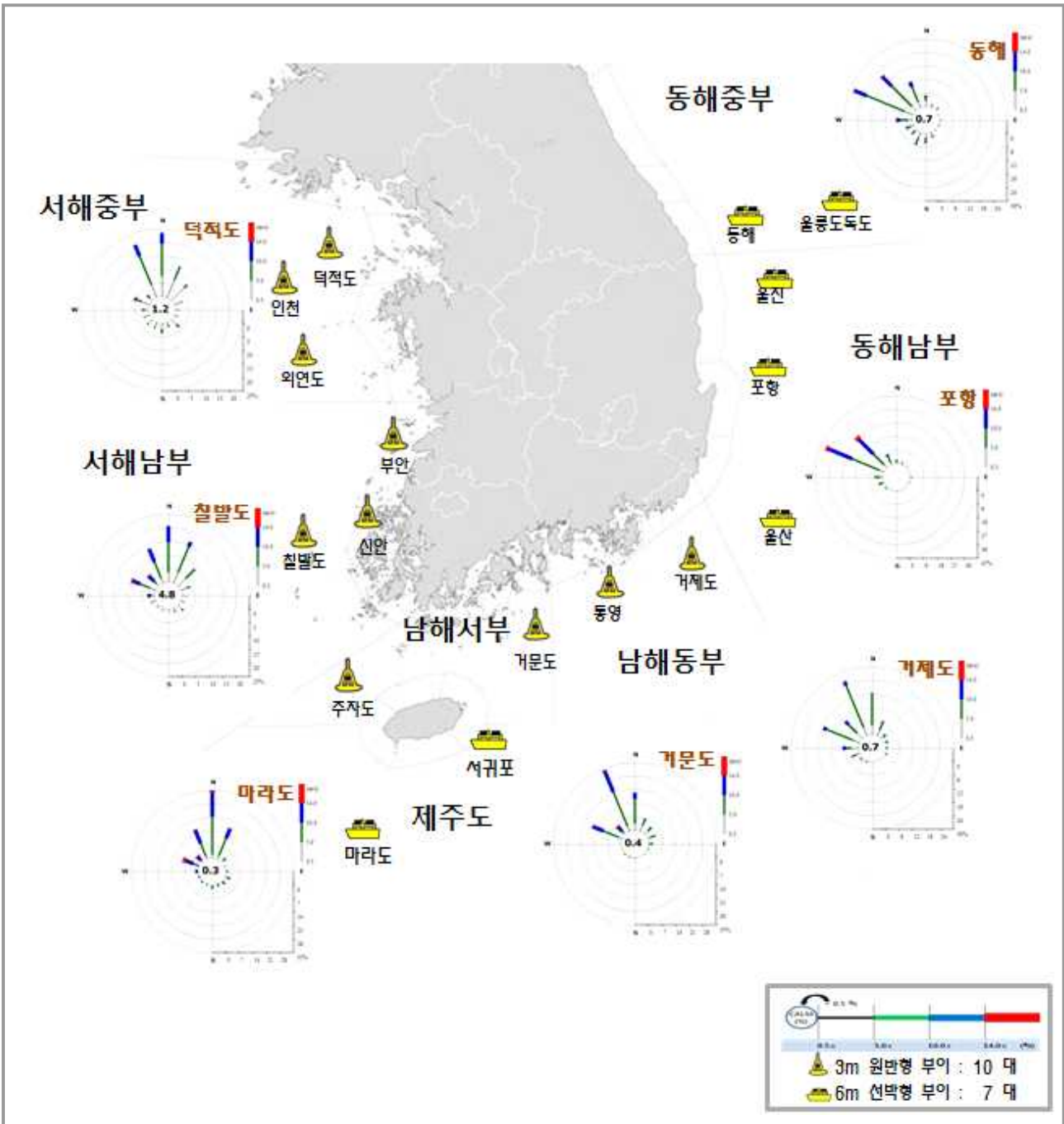


그림 4. '18년 1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해양기상부이의 전체 지점별 해상풍 바람장미는 부록1. 을 참고

○ 지난해('18년) 1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 ~ 4.9	5.0 ~ 9.9	10.0 ~ 13.9	14.0 ≤	
서해중부	N	1.2	41.8	42.2	14.3	0.5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N~NE	2.4	38.7	43.0	15.4	0.5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N~NW	0.3	20.2	53.2	24.7	1.6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NW	0.5	26.4	62.1	11.0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NW	0.6	26.0	50.2	21.2	2.0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NW	0.4	26.9	50.9	19.6	2.2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	N	0.1	10.8	50.6	33.7	4.8	마라도, 서귀포
<b>전 해상</b>		<b>0.9</b>	<b>28.9</b>	<b>49.1</b>	<b>19.5</b>	<b>1.6</b>	

- 주풍계: 전 해상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29.8% / 5.0 ~ 9.9m/s 49.1% / 10.0m/s 이상 21.1%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서해중부해상(43.0%),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함
  - 10.0m/s 이상: 제주도해상(38.5%),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함

○ 지난해('18년) 1월의 해역별 파고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파고(m) 분포(%)					관측지점	
	<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		
서해중부	50.6	34.4	11.6	3.4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61.3	19.9	11.1	7.7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49.9	37.3	9.6	3.2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47.4	51.6	1.0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9.0	40.4	31.6	18.7	0.3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16.0	51.8	27.7	4.5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	24.2	50.5	17.5	7.2	0.6	마라도, 서귀포	
<b>전 해상</b>		<b>37.7</b>	<b>39.6</b>	<b>16.3</b>	<b>6.3</b>	<b>0.1</b>	

- 전 해상 파고: 1.0m 미만 37.7% / 1.0~2.0m 39.6% / 2.0m 이상 22.7%
  - 서해는 1.0m 미만의 파고가 56.0%로 가장 많이 분포함
  - 남해는 1.0m 미만의 파고가 48.7%로 가장 많이 분포함
  - 동해는 1.0m ~ 1.9m의 파고가 46.1%로 가장 많이 분포함
- 파고 분포 최다 해역
  - 1.0m 미만: 서해남부해상(61.3%) / 3.0m 이상: 동해중부해상(19.0%)

■ 해수면온도 12월 실황 및 1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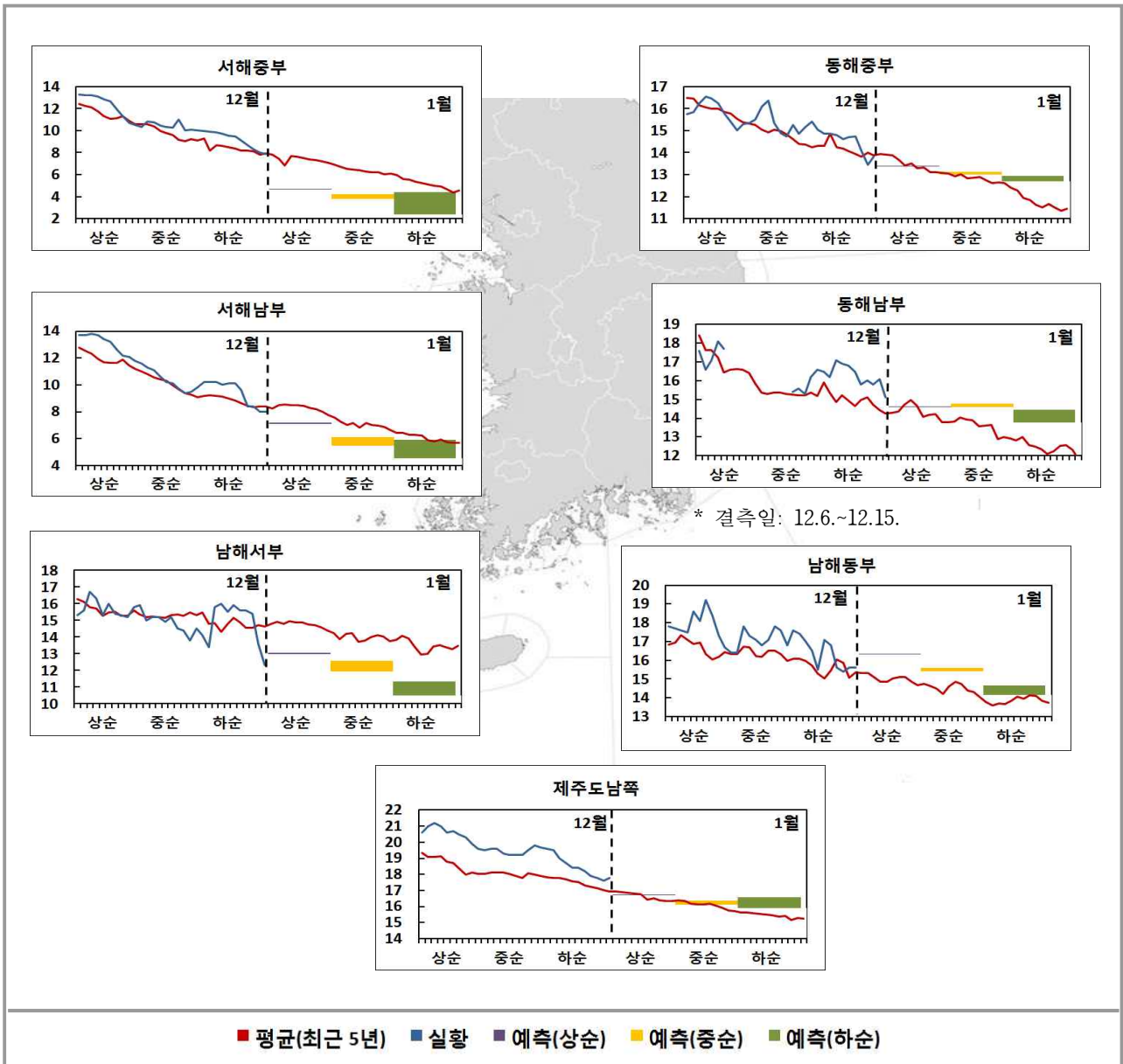


그림 5. 해수면온도 12월 실황 및 1월 예측

- ☞ 수온 관측정보는 해역별 대표 해양기상부이의 지난 달(12월)과 최근 5년간 ('13~'17년) 12월 평균값을 활용
  -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서해남부(칠발도)
  - 남해서부(거문도), 남해동부(거제도), 제주도남쪽(마라도)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 ☞ 수온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별 순별 평균 예측값을 활용하여,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8년 12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특성

해역	12월 해수면온도(°C)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10.5 ~ 13.3 (+0.8)	10.0 ~ 11.0 (+0.7)	7.9 ~ 10.0 (+0.8)
서해남부	11.8 ~ 13.8 (+1.1)	9.4 ~ 11.6 (+0.3)	8.0 ~ 10.2 (+0.6)
동해중부	15.0 ~ 16.6 (-0.1)	14.8 ~ 16.4 (+0.5)	13.5 ~ 15.4 (+0.4)
동해남부	16.6 ~ 18.1 (+0.5)	5.1 ~ 16.6 (-1.3)	15.1 ~ 17.1 (+1.3)
남해서부	15.2 ~ 16.7 (+0.1)	13.8 ~ 15.9 (-0.4)	12.3 ~ 16.0 (+0.0)
남해동부	16.7 ~ 19.2 (+1.2)	16.4 ~ 17.8 (+0.7)	15.4 ~ 17.6 (+0.7)
제주도 남쪽	19.6 ~ 21.2 (+1.9)	19.2 ~ 19.8 (+1.5)	17.6 ~ 19.6 (+1.0)

○ 최근 5년간 1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19년 1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1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19년 1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C)	해역	범위(°C)
덕적도, 외연도	4.4 ~ 7.8	서해중부	2 ~ 6
칠발도	5.7 ~ 8.5	서해남부	4 ~ 8
울릉도, 동해	11.4 ~ 13.9	동해중부	13 ~ 14
포항	11.8 ~ 15.0	동해남부	13 ~ 15
거문도	13.0 ~ 15.0	남해서부	10 ~ 14
거제도	13.6 ~ 15.3	남해동부	13 ~ 17
마라도	15.2 ~ 16.9	제주도 남쪽	16 ~ 17

※ 해수면온도 예측은 해역을 평균한 기후예측시스템 모델값으로 지점별 관측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석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1월 조석예보

서해안의 인천은 1월 23일에 91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1월 22일에 408cm, 동해안의 포항은 1월 23일, 24일에 24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1월 지역별 고극조위

해역	지역	대조기(삭 1.6)		대조기(망 1.21)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천	17:27	825	17:16	890
	안흥	16:29	623	16:12	677
	군산	15:46	640	15:29	692
	목포	14:50	431	14:34	474
남해안	제주	11:20	250	11:01	283
	완도	10:39	347	10:24	396
	마산	09:21	171	09:08	195
	부산	08:52	110	08:41	123
동해안	포항	02:36	22	01:59	22
	속초	02:26	26	02:02	29
	울릉도	01:38	21	01:15	18

☞ 2019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http://www.khoa.go.kr)),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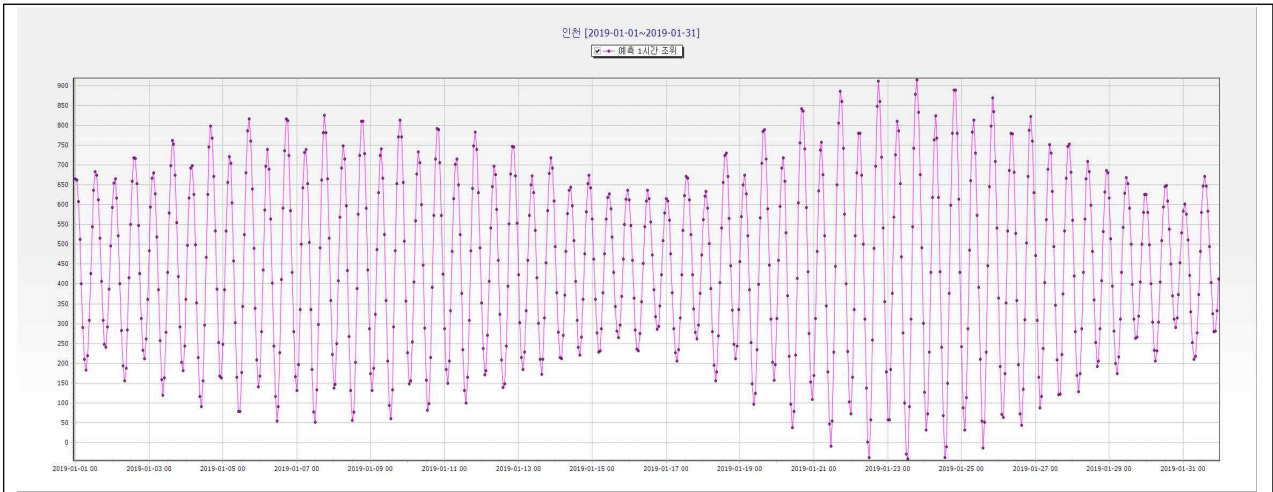


그림 6. '19년 1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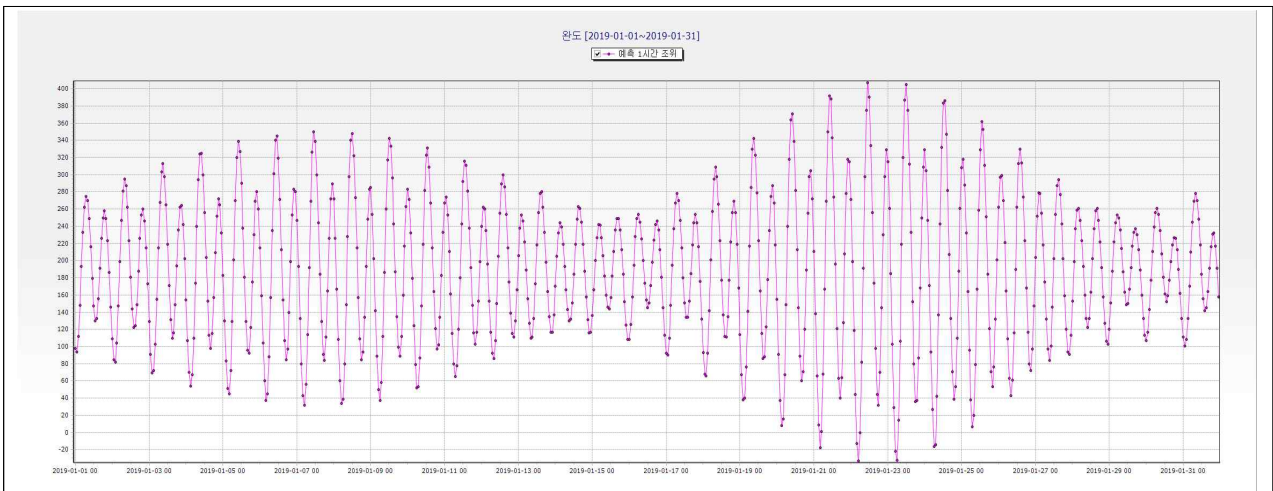


그림 7. '19년 1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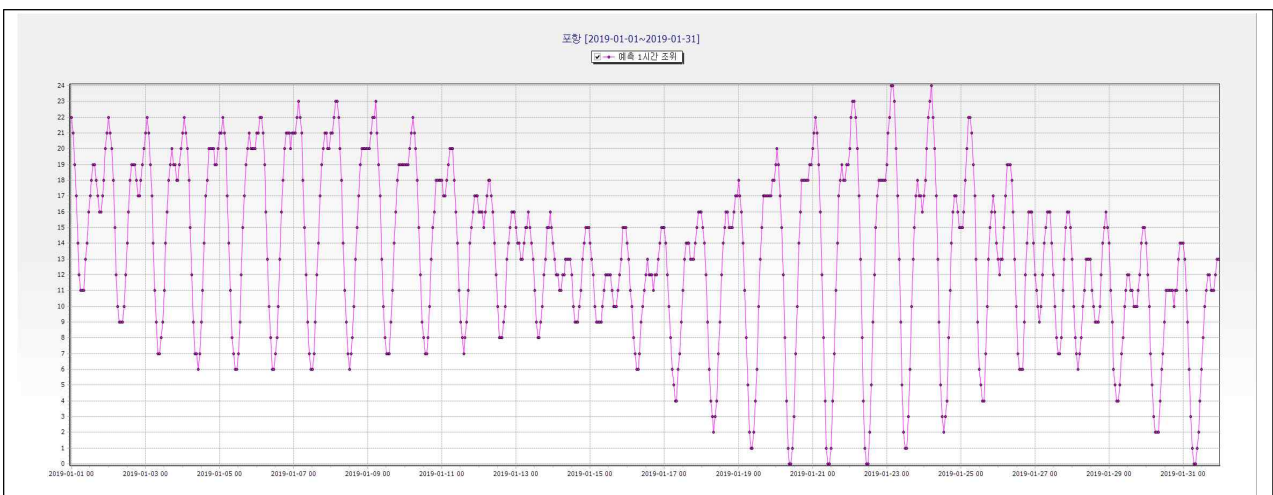


그림 8. '19년 1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 해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 최근 5년간('13~'17년) 해상조난사고 현황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 총 11,209척(75,459명)이 발생하여 선박 10,882척(97.1%) 및 승선원 74,589명(98.8%)이 구조되었고, 선박 328척(2.9%)이 침몰·화재전소로 소실되었으며, 승선원 870명(1.2%)이 사망(652명)·실종(218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척	명	척	명	척	사망	실종
계	11,209	75,459	10,882	74,589	328	652	218
2017년	3,160	17,336	3,102	17,228	5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64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48	19

### ○ 최근 5년간 월별 선박사고 현황



그림 9. 월별 선박사고 건 수('13~'17년)

☞ 1월 주요 해상조난사고는 부록2. 를 참고

## ■ 해상조난사고 현황

- (총괄) 최근 5년 간 1월에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는 전체 11,209척 중 750척(6.7%)으로 연 평균 150척의 사고가 발생
- 동 기간 사망·실종자는 60명으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
- (선종별) 어선 484척, 레저선박 58척, 화물선 53척 순으로 발생
- (유형별) 주요사고 중 충돌사고가 132척(17.6%)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부유물감김 98척(13.1%), 침수사고 48척(6.4%) 순으로 발생

---

## 해양 안전정보

---

- 1월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해상기상이 특히 불안정하며, 충돌·전복·침몰 등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익수 시 저수온에 따른 인명 사망률이 높아 사고 예방이 특히 중요함
- 운항자 및 해양종사자들은 견시를 철저히 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는 등 안전운항이 요구되며, 동절기 대비 선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비불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특보 및 항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항해를 하도록 권고
  -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 사용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송신되는 「海 Road 어플」 설치 권장
  - 기상청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 가입을 통한 해양기상 정보 수신
    - ※ 해역별 기상특보(농무·풍랑 등) 7가지 정보를 SMS 및 MMS로 제공

##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 ■ 최근 5년간('13~'17년) 1월 해양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1월 해양사고: 총 650건 발생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650	524	634	657	835	847	829	907	923	942	867	798

○ 1월은 폭설·한파에 따른 해상 악화, 연말연시 분위기로 인한 음주 등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기상정보 확인 및 안전의식 강화 필요(최근 5년간 월평균 157건, 1월 130건)

- 최근 5년간('13~'17년) 1월 해양사고

- (선종별) 어선 482건, 기타선·수상레저기구 58건, 예인선 41건, 화물선 33건, 여객선·유조선 18건 등의 순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175건, 부유물감김·운항저해 105건, 충돌 81건, 화재·폭발 49건, 작업중 인명사고\*(인명사상) 44건, 좌초 41건 등의 순

\* 2019년 3월 우리원 통계현황 공표시 '인명사상사고' → '작업중 인명사고'로 명칭변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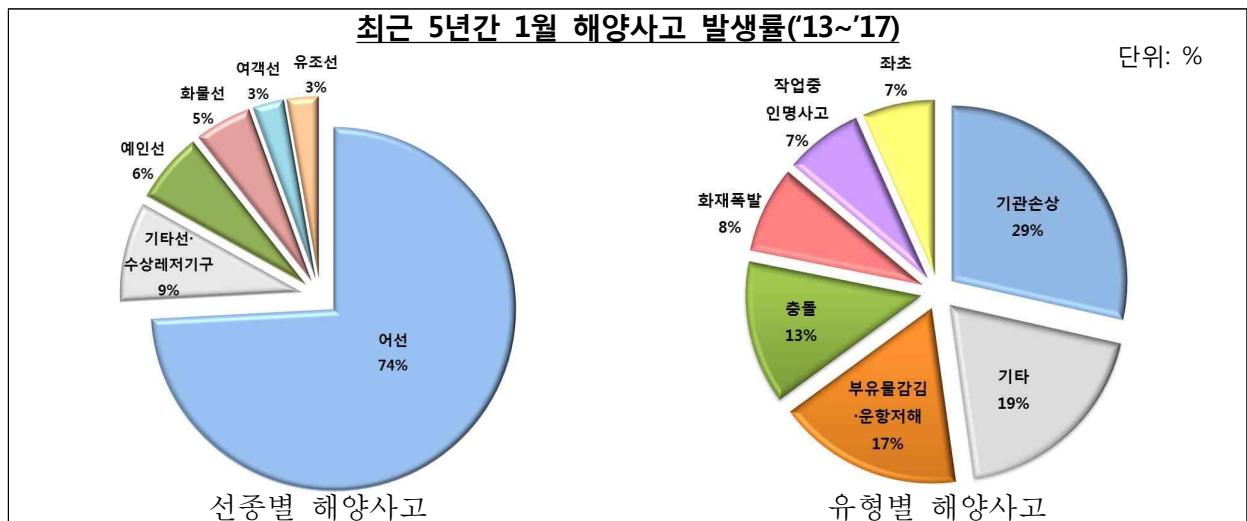


그림 10. 1월 해양사고 발생률('13~'17년)

- 최근 5년간 월별 충돌사고 현황('13~'17, 단위: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81	50	65	73	76	85	89	101	117	102	110	108

· 1월 충돌사고 현황(선종별) : 어선 55건, 화물선 13건, 유조선 3건, 예인선 7건 등

**1월의 해양사고예방 표어**

**안전한 바다가 행복한 바다입니다!**

■ 최근 5년간('13~'17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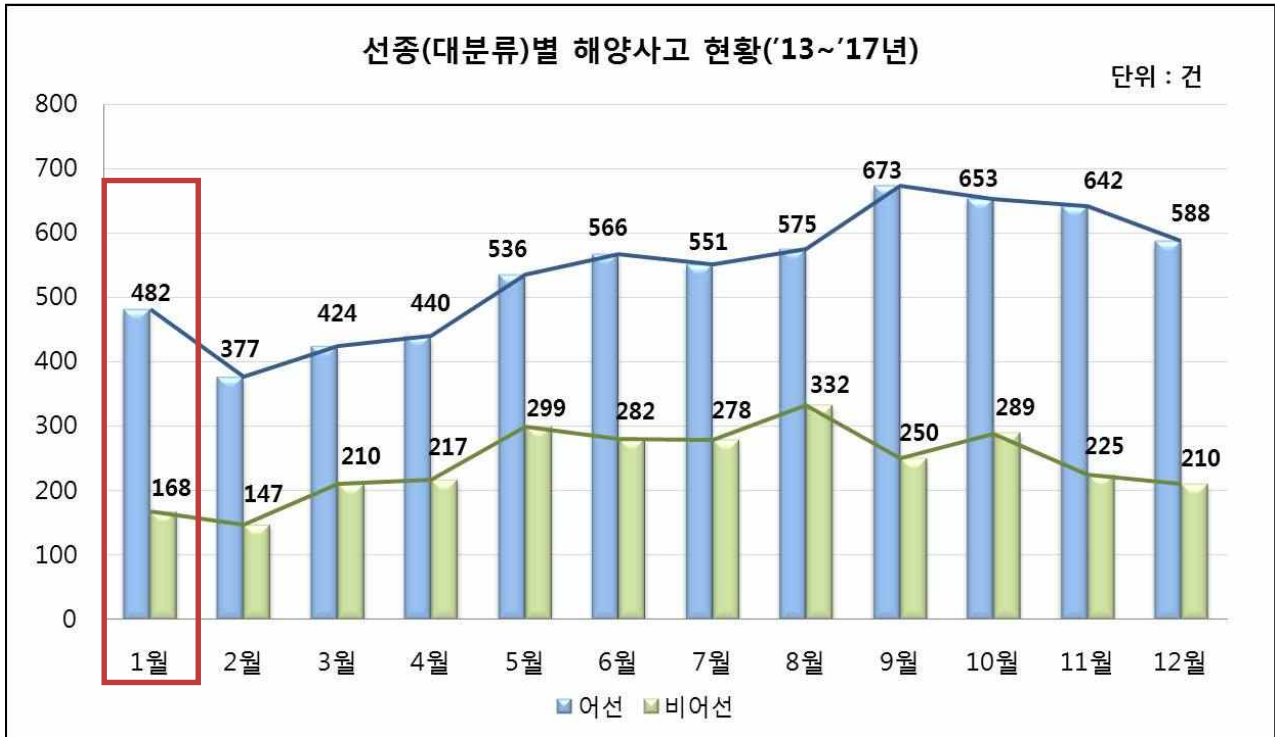


그림 11. 선종별 해양사고 현황('13~'17년)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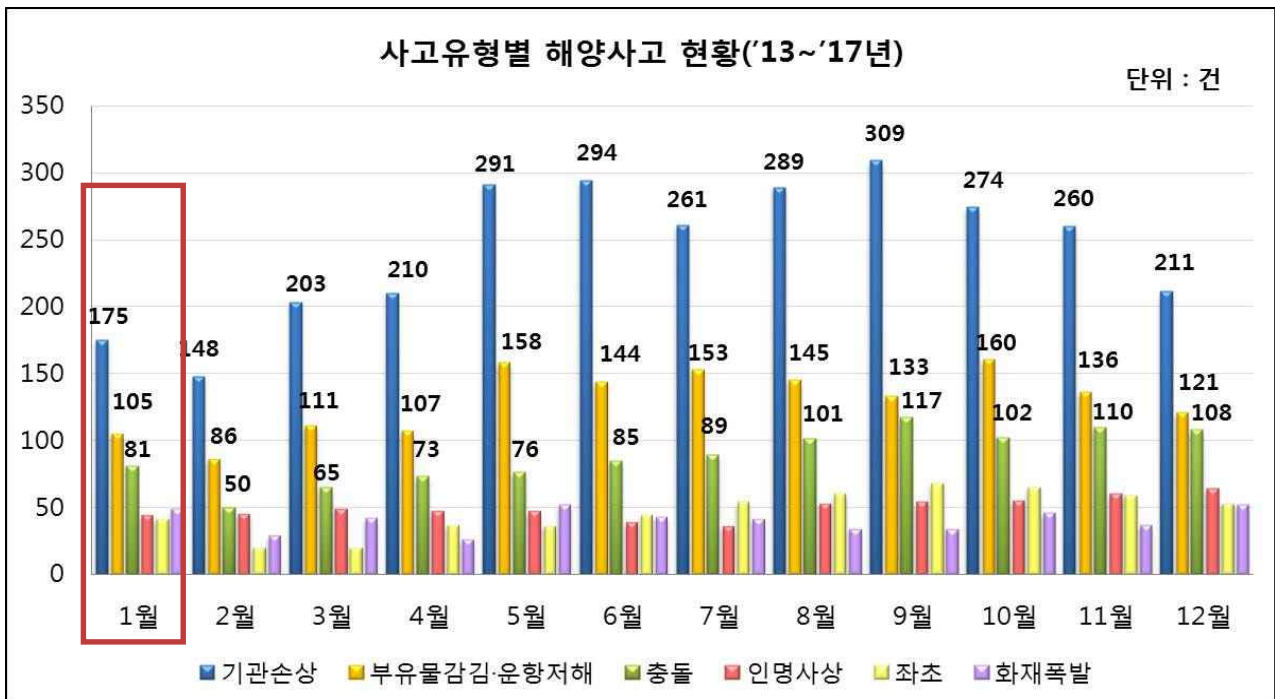


그림 12.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13~'17년)

☞ 1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3. 을 참고

#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 ■ 1월 어황정보

### ○ 지난달(12월) 어황

- 망치고등어, 전갱이는 평년비 순조
- 갈치는 평년수준, 고등어, 멸치, 참조기,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

### ○ 1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망치고등어, 방어, 전갱이, 정어리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 해역~동해 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최근 고등어와 망치고등어의 어군 밀도 증가로 단위노력당어획량은 전·평년비 크게 증가한 상태이며, 1월의 전체 어황은 평년대비 순조로운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멸치권현망어업**: 수온하강에 따라 근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겠음. 단위노력당어획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1월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근해안강망어업**: 주요 어종들의 남하(월동)회유에 따라 제주 북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아귀류, 병어류, 갈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최근 연조업척수 증가에도 단위노력당어획량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갈치, 말쥐치, 전갱이, 병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서부 근해~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조업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서부 근해~제주 남부, 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지겠고, 갑오징어류, 참돔, 보구치, 아귀류, 넙치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인망어업**: 가자미류, 눈불대, 아귀류, 넙치, 민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근해~부산, 울산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근해에서 청어, 기름가자미, 도루묵, 새우류를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저인망어업의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겠음
- **오징어채낚기어업**: 산란을 위해 남하 회유하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경북/경남 연·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은 연조업척수의 감소에도 평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하겠음



## ○ 주요 어종별 어황

고 등 어	계절적인 수온 하강에 따라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동해 남부해역~제주 서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중심어장은 제주 주변해역과 동해 남부해역으로 예상됨. 주어기(8월~이듬해1월) 들어 전반적으로 평년수준 이상의 어황을 기록하고 있어 어군밀도는 높은 상태로 판단됨.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의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살오징어	가을산란군에 이어 겨울산란군의 남하회유가 이어지겠고, 산란회유를 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해역(경북/울산 근해)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음. 동해 남부해역의 겨울철 수온 변동성에 따라 어황 또한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어군밀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멸 치	겨울철 수온하강에 따라 외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 중부해역(남해도와 거제도 주변)을 중심으로 권현망어업이 조업을 이어나가겠으며, 울산~기장 근해에서는 동해 남부해역으로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자망어업이 조업하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갈 치	월동을 위해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주어기를 지나면서 전월보다 어획량은 감소하겠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
참 조 기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고, 특히 제주 남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음. 주어기(9-12월)를 지나면서 전월대비 어획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
전 갱 이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제주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음. 7월 이후 평년대비 순조로운 어황을 이어가고 있어 어군 밀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으로 전망
망치고등어	주로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 어장(서해남부, 제주 남동부)에서 함께 어획되고 있으며, 평년대비 이례적으로 순조로운(6배) 어황을 기록하고 있음. 계절적인 수온하강에 따라 어장은 제주 주변해역으로 남하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대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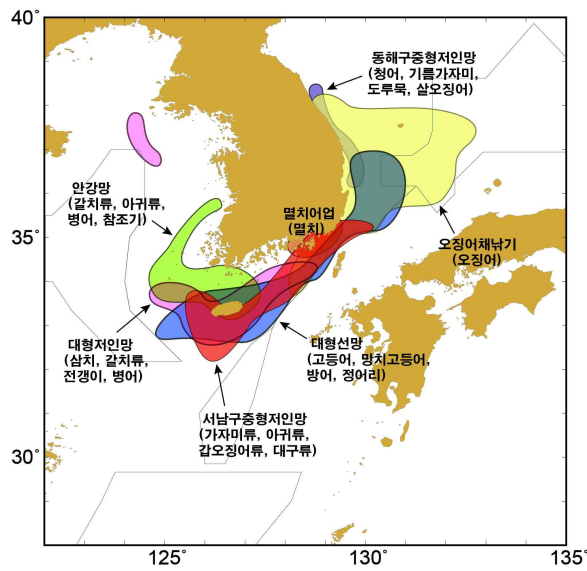


그림 13. 어업별 예상어장도(1월)

○ 저수온

- 12월 13일 전국 연안에 대해 저수온 관심단계가 발령되었고, 12월 28일 충남 가로림만에 대해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었음
- 1월에는 서해와 남해의 연안 및 내만을 중심으로 저수온 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

## 【부록 1】

##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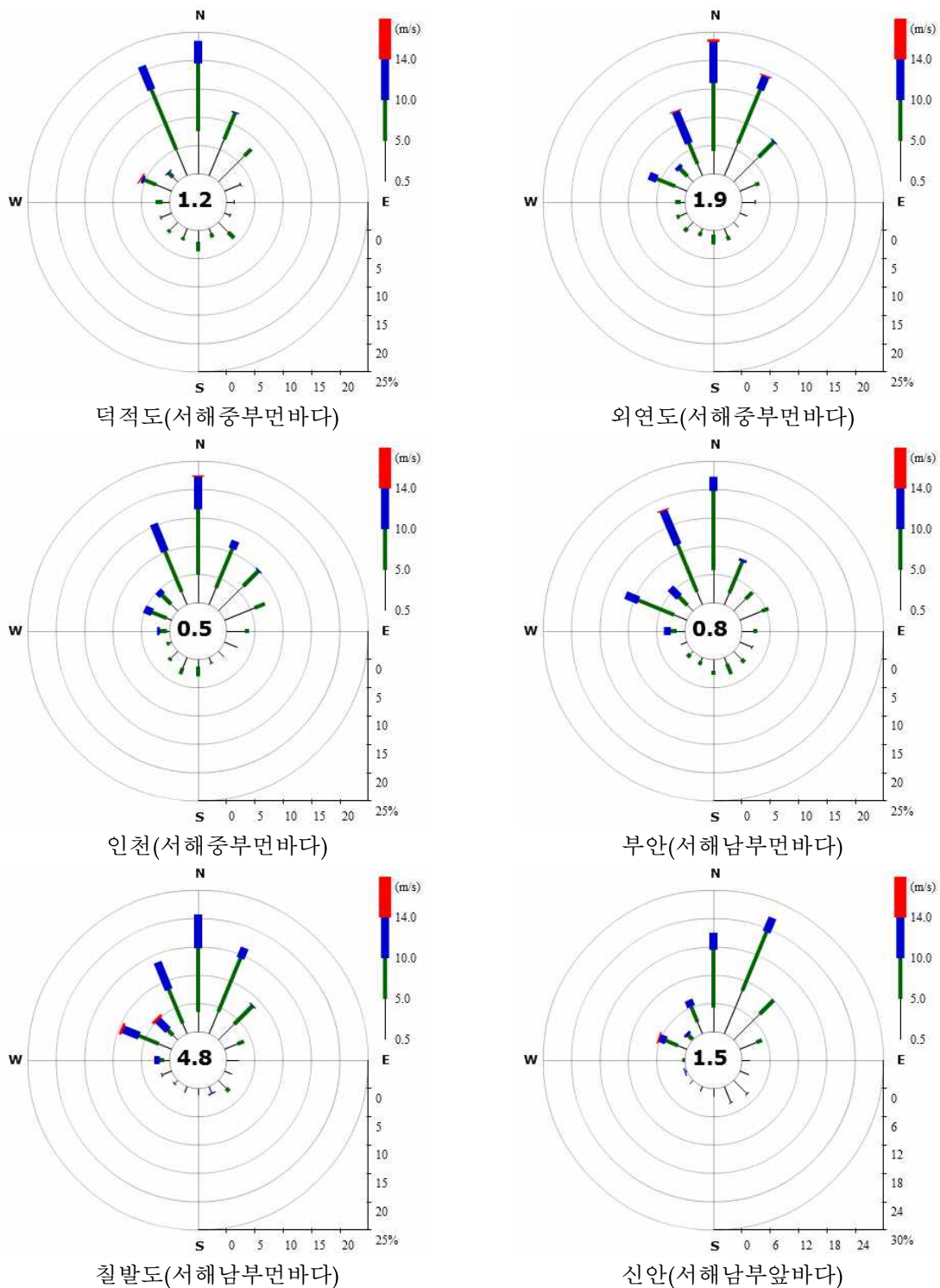


그림 1.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8년 1월, 바람장미)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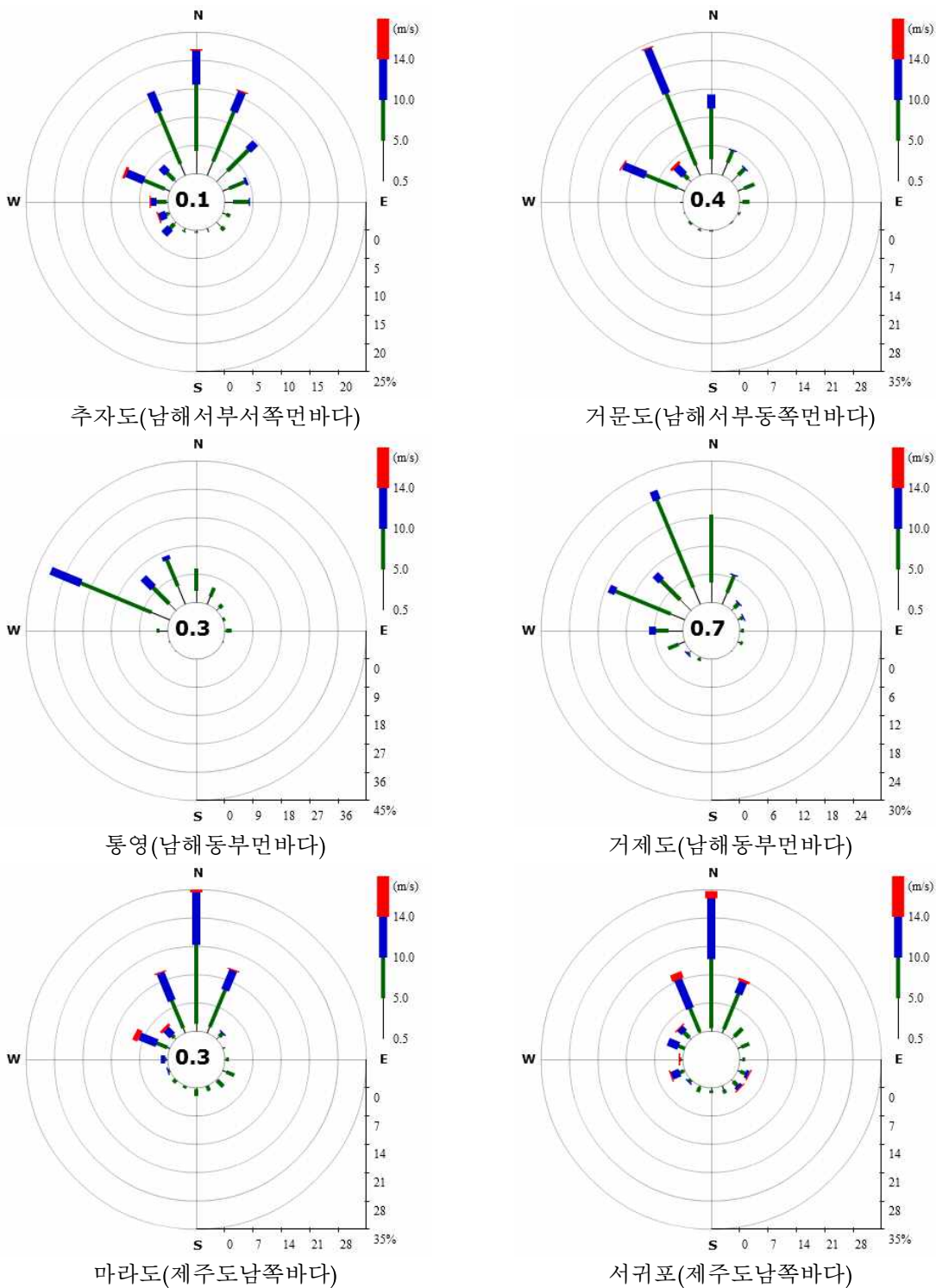


그림 2.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8년 1월, 바람장미)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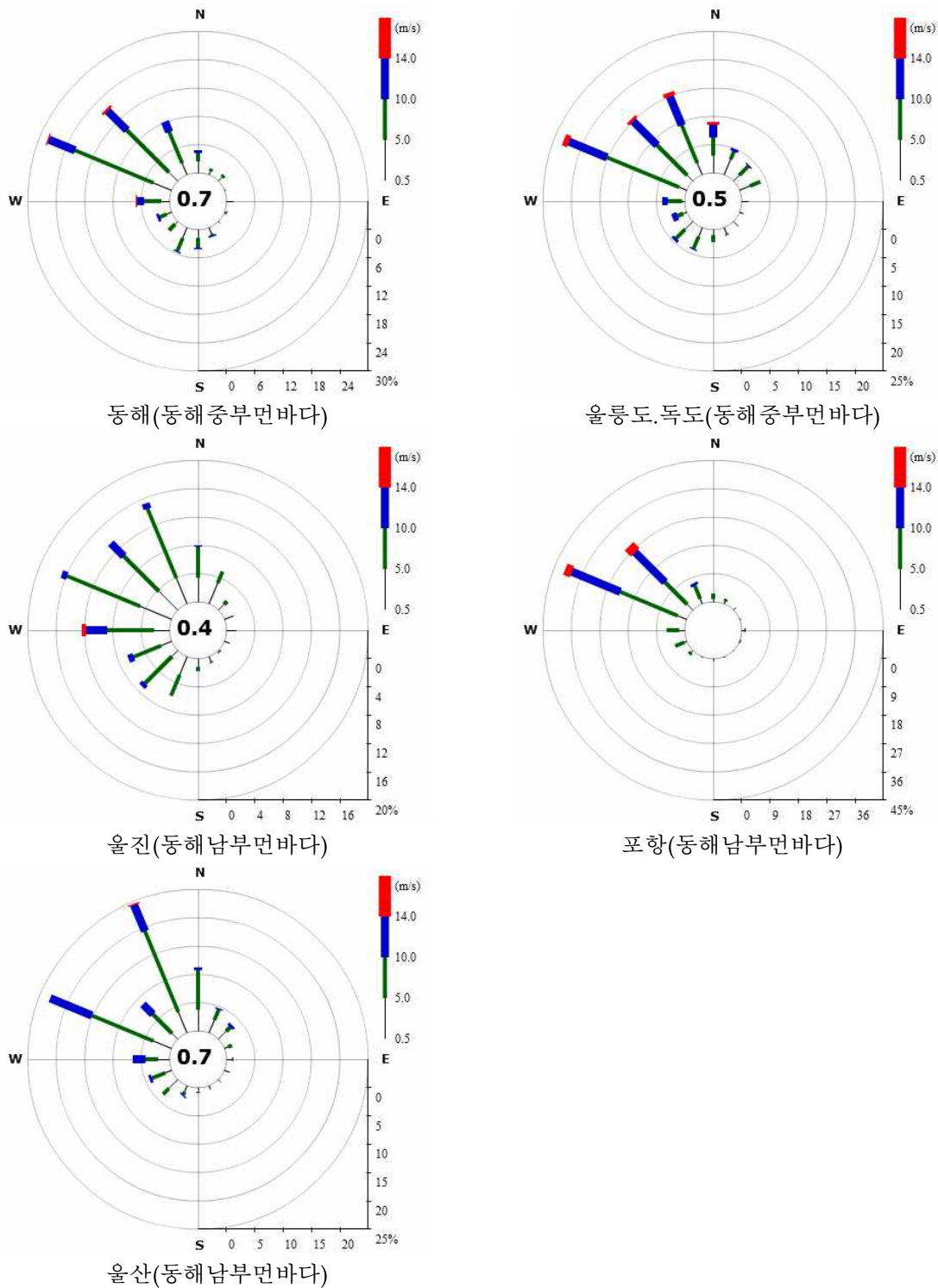


그림 3.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8년 1월, 바람장미)

## 【부록 2】

## 1월의 주요 해상조난 사고 사례

제공: 해양경찰청

## ○ 사고 사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8.1.18. 05:00경	동*호 (20톤, 어선, 승선원 7명)	선체침수 1명 실종	항해 중 상호 견시 부주의 및 항법 준수 위반 * 당시기상 : 북서풍, 6~8%, 파고 1m, 맑음
	133**호 (181톤, 어획물운반선)	-	
'18.1.31. 15:41경	13**호 (40톤, 어선, 승선원 8명)	기관실전소	기관실 내 정비불량에 따른 전기누전으로 화재 발생 * 당시기상 : 남서풍, 8~10%, 파고 1.5m, 흐림



어선 동\*호 충돌



어선 13\*\*호 화재

**【부록 3】**

**1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 · 어선 B호 충돌사건**

사건명		어선 A호 · 어선 B호 충돌사건
사건개요	선박	A호 : 어선, 181톤, 디젤기관 1,170kW 1기 B호 : 어선, 20톤, 디젤기관 555kW 1기
	일시	2018. 1. 18. 04:53경
	장소	울산광역시 간절곶 동방 20.7마일 해상
	피해	A호 : 없음 B호 : 선체 반파, 선원 1명 실종 및 1명 부상
	상황	조업 일정을 위해 무리하게 출항한 B호의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고, A호의 선장은 상대선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사고 발생
날씨	북풍 초속 약 1m, 파고는 1.0m,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B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A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A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li> </ul>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수단을 모두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li> <li>어선의 선장은 선교에서 1인 당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해 중 졸음 운항을 하지 위해서는 항해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li> </ul>	
충돌 상황도		

## 1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 2. 부산 C호 침수사건

사건명		부산 C호 침수사건
사건개요	선박	C호 : 부산, 3,876톤, 디젤기관 1,176kW 2기
	일시	2017. 1. 30. 07:47경
	장소	인천광역시 팔미도등대로부터 086도 방향 약 2.15마일 해상
	피해	C호 : 선체 침수 및 기관 손상
	상황	고철 약 4,300톤을 적재한 C호가 정박지에 무인상태로 정박 중 강풍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고철이 해상에 쏟아지고 선체 절반가량이 침수됨
날씨	북서풍 초속 10 ~ 15m, 파고는 1~1.5m, 풍랑주의보 발효, 시정은 약 4마일 이상으로 양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박 중이던 C호가 강풍에 좌우로 요동하자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움직여 선체가 좌현 경사되고 좌현 쪽 공기관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수사건 발생, 선박임차인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li> </ul>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철과 같이 고박이 어려운 형태의 화물도 화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재하여야 하며, 선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적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함</li> <li>○ 선박운항자는 정박지에 부선을 정박하더라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인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박선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li> </ul>	
사고선박 현장 사진	